

제21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

1. 일시·장소 : ' 21. 5.12(수), 12:00~17:20 서울-도쿄 연결 화상회의
- 서울 :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호
- 도쿄 : Hotel Okura 東京
2. 주최기관 : 한일경제협회, 한국무역협회, 일한경제협회,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
3. 참 가 자 : 총 73명
- 한국측 : 이관섭 체어맨(한국무역협회 부회장) 등 42명
- 일본측 : 아소 유타카 체어맨(아소시멘트 회장) 등 31명
4. 회의주제 : 한일, 함께 창조하는 미래
- 세션 1 :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
- 세션 2 :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
5. 회의 개최결과

- 제53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인 ‘한일, 함께창조하는 미래’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역할 수행
 - 코로나19 팬데믹 및 한일관계의 악화 지속 등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, 한일의 상호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한, 한일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
- 주요 제언내용
 - ① 복수국가간 협정(RCEP, CPTTP)을 통한 한일경제협력 강화방안 제언
 - 과거에 묻히면 미래는 없고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음을 강조
 - 디지털, 전기·수소차 등 한일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협력, 한일 양국 발전에도 기여
 - ② 한일경제협력 11년의 회고 및 중단없는 경제인·3국 진출·청소년교류 등 제언
 - 경제인회의 4회 개최연기, 110건의 제3국 공동진출, 청소년 교류(26회, 2,300명), 풀뿌리 민간교류 지속, NHK ‘지구리얼 한일기술협력의 기억’ 비디오 소개(현대차의 기술지원 및 자동차 산업발전)
 - ③ 수소협력→제3의 시장 공동진출, 국가 인증기관 교류 및 국제 표준화 협력 제언
 - 수소차 공동 협업한다면,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. 운송·저장 등 서로 협력분야 찾아 협력한다면, 인프라 확대가 기대됨
 - ④ 미래세대 교류를 통한 관계 복원 및 한일경제협력 제언
 - 한국청년인재의 활용 (인턴십, 인재 채용)
 - 청소년 교류 확대 (소년, 대학생 교류)